

신라의 삼국통일과 김유신

김 수 태*

1. 머리말
2. 국제관계의 변화 주도
3. 공동체적 결합의 강조
4. 삼한통일론의 제시
5. 삼국통일론의 형성과 나당관계
6. 맺음말

국문초록

김유신(595~673)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유신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필자도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혔지만, 신라의 삼국통일론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어서이다. 때문에 김유신의 삼국통일론이 어떠하였는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김유신이 당시의 외교정세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

* 충남대학교 교수 / kstae@cnu.ac.kr

고서 활동하였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김유신을 당나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자주적인 인물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파악하기만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유신의 대외인식과 관련해서 시기적인 변화양상을 제대로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유신의 사상적 기반에도 새로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와 유교의 관련성을 다룬 글이 나와 있어서 주목되지만, 그가 신라 중동기의 유교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였다. 그가 원광의 ‘세속오계’를 바탕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그는 신라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결합을 크게 강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김유신이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군사적으로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가로서, 외교가로서, 사상가로서도 크게 활동한 또 다른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다.

◆ 주제어

김유신, 김춘추, 삼국통일, 유교, 당나라,

I. 머리말

김유신(金庾信 : 595~673)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2000년대에 들어 와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천관우가 『인물로 본 한국고대사』(1982)에서 「김유신」을 다룬 전통을 이은 것이었다.¹⁾ 그러나 아무래도 신라사학회에서 김유신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²⁾ 여기에서는 그동안 김유신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진했던 이유를 언급하면서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³⁾ 이후 김유신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모습이 그려질 수가 있었다.

김유신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내용은 그의 가계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⁴⁾ 姓氏의 문제가 크게 다루어졌다. 중국 상고의 전승에 나오는 少昊金天氏와 김유신 가문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가 그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유신 가문을 新金氏와 연결시켜 온 사실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⁵⁾ 이는 김씨라는 성씨의 의미와, 그의 출신지역인 김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김유신 가문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김유신의 동생인 金欽純이나,⁶⁾ 둘

-
- 1) 정구복, 「김유신(595~673)의 정신세계」, 『청계사학』 16·17, 2002와 이기동, 「김유신-『至誠』으로 이룬 삼국통일의 위업」, 『한국사시민강좌』 30, 2002를 들 수 있다. 이는 서의식, 「김유신 - 삼국 통일에 평생을 바친 智勇 겸비의 명장」, 『한영우기념사학논총』, 2003과 후보돈, 「김유신」, 『신라를 빛낸 인물』, 2016으로 이어졌다.
 - 2) 『신라사학보』 11와 12, 2007과 2008을 참고할 것. 이는 『흥무대왕 김유신 연구』(2011)로 나왔다.
 - 3) 후보돈, 「김유신의 정치지향-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신라사학보』 11, 2007.
 - 4) 이문기, 「금관가야계의 시조 출자 전승과 稱姓의 변화」, 『신라문화계학술논문집』 25 2004.
 - 5) 이현태, 「신라 중대 신김씨의 등장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 6) 조범환, 「김유신의 가계와 후손들의 활동-가야계 출신이어서 가지는 한계」의 학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신라사학보』 11와 서영교, 「백제멸망전쟁과 김흠순」, 『영남학』 74, 2020.

째 아들인 元述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도 나왔다.⁷⁾

이와 함께 김유신의 사상적 기반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졌던 것도 들 수 있다. 이전처럼 김유신을 불교와만 연결시키면서 다루던 것에서 그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이다. 도교나 占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지만,⁸⁾ 그의 집안이 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⁹⁾ 이러한 접근은 김유신의 활동을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만 파악하지 않고, 정치가 혹은 경세가로서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김유신과 관련된 사료의 문체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던 점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김유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原典資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이다.¹⁰⁾ 이는 金長淸의 「行錄」에 대한 기존의 관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¹¹⁾ 이러한 분석은 김유신과 관련된 설화적인 요소의 신빙성 여부나, 여러 사료들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게 해주었다. 여기에는 金庾信碑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¹²⁾ 따라서 이러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김유신 관련 사료들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김유신과 관련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국통일과 관련된 내용

7) 김수태, 「임전무퇴의 사회사-원술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연구의 현 단계』, 2009.

8) 김태식, 「方士로서의 김유신 - 道敎敎團으로서의 화랑 탐구를 겸하여」, 『신라사학보』

11 및 「김유신의 입산수도과 그의 용화낭도」, 『한국고대사탐구』 13, 2013과 나희라, 「고대 한국의 占卜 시행과 그 의미」, 『대구사학』 126, 2011.

9) 이문기와 후보돈, 앞의 논문을 참고할 것. 그리고 김복순, 「김유신(595~673) 활동의 사상적 배경」, 『신라문화』 31, 2008을 들 수가 있다.

10) 이문기, 「『삼국유사』 기이편 「김유신」조의 재음미」,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9, 2018과 박현숙, 「『삼국유사』 「기이」편 태종 춘추공조의 내용 구성과 신이성, 앞의 책과 전덕재,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의 원전과 그 성격」, 『사학연구』 139, 2020.

11) 이기백, 「김대문과 김장청」, 『한국사시민강좌』 1, 1987.

12) 후보돈, 「통일신라의 (능)묘비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목간과 문자』 9, 2012. 또한 고려와 조선시대까지의 김유신에 대한 이해를 다룬 박찬홍, 「김유신 관련 사료를 통해 본 시기별 인식」, 『동양고전연구』 72, 2018이 있다.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삼국통일전쟁과 관련하여 김유신의 군사적 활동이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¹³⁾ 개별 전투의 양상에 대한 검토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삼국통일전쟁의 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軍事史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전쟁의 경과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였던 장군이나 일반 병사들에 대한 관심 등 보다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김유신이 아팠던 風疾과 관련해서 전쟁과 질병의 상호관계를 다룬 연구는 방법론적 모색에서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¹⁴⁾

그러나 김유신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이끌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요인으로 무엇에 중점을 두었으며, 어떠한 사상적 기반으로 삼국통일을 추구하였으며, 또한 그가 어떠한 삼국통일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나당전쟁을 거치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준 국제정세의 변화는 어떠한가 등에 대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신라의 삼국통일론과 관련해서 김유신의 삼한통일론을 다루어 본 바가 있다.¹⁵⁾ 신라가 처음부터 삼국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¹⁶⁾ 어떻게 김유신의 삼한통일론이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본 것이었다. 잘 지적되고 있듯이, 신라의 삼국통일이란 결과론에서 유추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점에서이다.¹⁷⁾ 그러나 신라의 삼국통

13) 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 2012과, 「661년 북한 산성 전투와 김유신의 대응」, 『국학연구』 31, 2016 및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논총』 17, 2016. 낭비성 전투에 대해서는 김강훈,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 138, 2020, 대야성 전투에 대해서는 이문기, 「648·649년 신라의 대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2016이 참고가 된다. 이밖에 장창은, 「7세기 전반~중반 백제·신라의 각축과 국경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도 참고가 된다.

14) 이현숙, 「김유신의 풍병과 신라 통일전쟁기의 질병」, 『신라사학보』 12, 2008.

15)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2014.

16) 김수태, 「문무왕」, 『한국사시민강좌』 13, 1993.

일과 관련해서 삼한통일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¹⁸⁾ 신라의 백제와 고구려 멸망이 삼국통일인지 통합인지에 대한 부분 역시 그러하다.¹⁹⁾ 때문에 김유신의 삼국통일론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김유신이 당시의 외교정세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유신의 대당인식을 통해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²⁰⁾ 김유신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살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올바른 방향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김유신이 당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김유신의 사상을 다룬 연구를 통해서 언급된 바가 있다. 그를 역시 자주적인 인물로 반당의식이 강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²¹⁾ 그 결과 김유신을 대당강경책을 추구한 인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파악하기만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유신의 대외인식과 관련해서 시기적인 변화양상을 제대로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유신의 삼국통일론을 그의 대외인식과 연결시켜 다시 다루어보고자 한다. 먼저 그가 삼국통일의 요인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그리고 어떠한 삼국통일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대외관계의 변화 속에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정치가로서의 김유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외교가로서의 김유신도 함께 파악해낼 수가 있기를 바란다.

17) 후보돈, 앞의 논문, 2007, 11쪽.

18) 최근의 논의로는 김영하, 「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 - 최근의 사료 비판과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9, 2018과 「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 2 - 핵심 사료의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가 있다.

19) 후보돈, 앞의 논문, 2007, 11쪽에서는 ‘백제통합’과 ‘삼국통합’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 전경효, 「7세기 후반 나당관계와 김유신」, 『대구사학』 115, 2014.

21) 김복순, 앞의 논문을 참고할 것.

II. 국제관계의 변화 주도

김유신이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그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시 신라의 외교정책은 김춘추 가계를 중심으로 주도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김춘추의 대고구려, 대일본, 대당외교가 그러하고, 그의 맏아들인 김법민, 그리고 김춘추를 따라갔다가 당에 그대로 머물러 숙위하였던 김문왕이나, 그 이후 숙위하였던 김인문 등의 활동이 잘 말하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유신 가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의 현상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 이후 이 방면에서의 군사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설명되고 있다.²²⁾ 거기에는 신라가 선진국인 중국과 직접 통교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김유신의 동생인 김흠순이나, 김유신의 맏아들인 삼광이 숙위를 하면서 신라의 대당외교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유신도 신라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인물이었다고 하겠다.

이 점과 관련해서 김유신이 당나라나, 일본에까지 잘 알려진 인물임이 지적되고 있다.²³⁾ 648년 김춘추가 입당하였을 때 당나라 태종이 김유신의 이름을 익히 듣고서 그 사람됨을 물었다든지, 668년 일본이 귀국하는 신라 사신 김동업에게 배 1척을 김유신에게 선물로 주고자 한 사실 등을 통해서 이미 당대에 김유신의 명성이 동아시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7세기 당시 이미 김유신의 국제적인 위상이 대단하였음을 웅변하는 실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룬 주역들이 모두 국제적으로 활동한 인물로서, 그들의 시야를 삼국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로까지 크게 확

22) 후보돈, 「김유신」, 『신라를 빛낸 인물』, 2016, 69~70쪽.

23) 후보돈, 앞의 논문, 2011, 6~7쪽.

대시켰던 인물이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김유신 역시 김춘추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국제정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라의 외교정책에 관여한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유신이 신라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었음을 주장한 연구가 또한 찾아진다.²⁴⁾ 당연한 접근이지만, 김춘추에게 있어서 내정과 외교의 상호관계가 매우 밀접하였다는 점을²⁵⁾ 고려할 때 이러한 견해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에 의하면 그가 국사를 총괄하는 상대등직에 있었다는 점에서 신라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특히 7세기 후반 백제의 멸망 이후 전개된 나당관계에서 김유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은 문무왕이 고구려의 멸망 직후 신하들에게 김유신이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어 그 공적이 많았다.”고 언급하였듯이, 그가 재상으로 서나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잘 수행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그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 모두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활동하였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김유신이 동아시아의 국제무대에 비로소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629년에 있었던 신라가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던 낭비성 전투가 아닐까 싶다.²⁶⁾ 열전에서는 당시 그의 지위를 중당 당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라 본기에서는 부장군, 고구려 본기에서는 장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고구려 본기에서는 이를 그의 단독 전투처럼 서술하고 있다. 열전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김유신의 참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활약으로 신라 쪽의 불리한 전세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유신이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640년대의 일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642년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에 의해서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 부부가 살해되자 중요한 계기를 맞았다. 그가 642년 겨울에 있는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외교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24) 전경효, 앞의 논문, 3쪽과 8쪽.

25) 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 『한국학논집』 20, 1993.

26) 낭비성 전투에 대해서는 김강훈, 앞의 논문을 참고할 것.

신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군사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진평왕 대인 608년에 있는 수나라에 대한 청병외교와 같은 것이다. 그때에는 고구려였지만, 이제는 백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얼마 전까지 신라와 대립하고 있던 고구려와 군사적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서, 김유신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얼마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유신이 더욱 크게 부각된 것은 역시 대백제전 활동을 통해서였다.

“문무대왕은 이미 英公과 함께 평양을 격파하고 돌아오며 南漢州에 이르러 여러 신하에게 이야기하였다. “옛날 백제의 明禮王이 古利山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꾀하고 있을 때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 각간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맞아 공격하여 승기를 타고 그 왕 및 재상 4명과 군사들을 사로잡아 그 예기를 꺾었다. 또한 그의 아버지 김서현은 良州總管이 되어 여러 차례 백제와 싸워 그 예봉을 꺾어 변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변방의 백성들은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을 편안히 하였고, 임금과 신하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라일에 골몰하는 근심이 없어졌던 것이다.”²⁷⁾

성왕을 죽임으로 내몰았던 할아버지인 김무력만이 아니라, 아버지인 김서현은 신라의 대백제전투에서 남다른 공로를 세운 인물들이었다. 그만큼 김유신의 집안은 비교적 일찍부터 백제에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김유신의 군사적 활동은 그의 집안의 전통을 이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648년 진덕왕 2년 정월에 있는 대백제 전투이다.²⁸⁾ 김유신이 좌평 의직과 충돌하였는데, 전투 초반과는 달리 김유신이 출전함으로써 백제가 크게 패배하고 의직은 달아났다. 그런데 이 좌평 의직은 나당연합군의 백제침공 때 백제가 우선적으로 대항할 국가로서 신라 대신 당나라를 선택하고자 주장한 인물이다. 신라와의 정면 충돌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김유신이 이끌고 있던

27)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

28) 『삼국사기』 권5, 진덕왕 2년

신라군의 활동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식의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백제가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신라군과 전투를 벌임으로써 몰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신라의 김유신이란 존재가 백제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백제전투에서 드러난 김유신의 군사적 활동은 김춘추의 대당 청병 외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신라는 당나라에게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자 주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²⁹⁾ 그것은 당나라 태종과 김춘추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진덕왕 태화 원년 무신(648년)에 김춘추는 고구려에 청병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를 요청하였다. 태종 황제가 “너희 나라 김유신의 명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 하니, “유신은 비록 조금 재주와 지혜가 있지만, 만약 천자의 위엄을 빌리지 않는다면 어찌 이웃한 근심거리를 쉽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진실로 군자의 나라로구나.”라고 말하며 그 요청을 수락하여 장군 소정방에게 군사 20만으로 백제를 정벌하게 하였다.”³⁰⁾

당 태종이 김춘추에게 김유신이 어떠한 사람이냐고 질문한 이유는 신라의 백제침공이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를 물어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나라 역시 김유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신라의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김춘추는 당시 대백제전투에서 김유신이 보여준 활동과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김유신이 있지만, 당나라의 군사적 협력이 있다면 백제멸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득하였을 것이다. 이에 당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서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전략으로 수정하였던 것이다.³¹⁾

29) 후보돈, 앞의 논문, 48쪽에서는 청병을 요청했던 처음에는 소극적인 백제 저지책에 머물렀다가 이제는 백제와의 전면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그 전환의 시기를 김춘추의 입당 시점에서 찾고 있다.

30)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31) 그것은 “당나라 황제가 그 글을 보고 생각하기를 그가 태자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사정은 신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김유신과 김춘추가 주장하는 신라의 백제멸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국왕조차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열전에서는 앞의 내용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때 김유신은 압량주 군주로 있었는데, 마치 군사 일에는 뜻이 없는 듯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기며 몇 달을 보냈다. 주의 사람들이 유신을 어리석은 장수로 여겨 그를 비방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낸 날이 오래인지라 힘이 남아 한번 싸워볼 만한데도 장군께서는 게으르니 어이할꼬.”라고 말하였다. 유신이 이를 듣고 백성들을 쓸 수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대왕에게 “지금 민심을 살펴보니 일을 벌일 만하옵니다. 청컨대 백제를 쳐 대량주에서의 치욕을 갚고자 하나이다.”라고 고하였다.

왕은 “작은 것이 큰 것을 범하려다가 위태로워지면 장차 어찌하겠는가?”라고 말하니, 김유신은 대답하였다. “군사가 이기고 지는 것은 크고 작은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따름이옵니다. 그러므로 주(紂) 임금에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이 떠나고 덕이 떠났으므로, 주(周)나라의 10명의 어진 신하들이 마음을 합치고 덕을 합친 것만 같지 못하였사옵니다. 지금 저희들은 뜻이 같아서 더불어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으니 저 백제라는 것은 죽히 두려워할 것이 없나이다.” 왕이 이에 허락하였다.”³²⁾

백제를 대국으로, 신라를 소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진덕여왕은 그 가능성을 의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유신은 이제 신라가 백제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대야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김품석 부부의 유해를 돌려받음으로써 증명하였다. 이 역시 백제 멸망을 위해서 신라 내부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김유신의 노력이

이르기를 “33천(天)의 한 사람이 신라에 내려가 유신이 되었다.”고 한 일이 있어서 책에 기록한 바가 있는데, 이에 꺼내어 그것을 살펴보니 놀랍고 두렵기 그지없었다. 다시 사신을 보내어서 태종이라는 칭호를 고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하였다.”라고 하여(『삼국유사』 1, 기이, 태종 춘추공조), 당나라가 김유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살필 수 있다.

32)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라고 할 수 있다.

김유신이 백제멸망 작전을 주도한 사실은 655년의 내용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

“이때 백제의 임금과 신하들은 사치가 심하고 방탕하여 나라일을 돌보지 않으니 백성들은 원망하고 신은 노하여 재앙과 괴변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 유신이 왕에게 “백제는 無道하여 그 죄가 桀과 紂보다 더하옵니다. 이에 진실로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징벌하실 때이옵니다.”라고 고하였다.

이보다 앞서 租末坤 급찬을 夫山縣令으로 임명하였는데, 백제에 잡혀가 좌평 任子의 家奴가 되었다. 모시고 섬기기를 근면하고 조신하게 하였으며, 지금까지 태만한 적이 없어서 임자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의심하지 않았고 그 출입도 제멋대로 할 수 있었다. 이에 도망쳐 돌아와 백제의 사정을 유신에게 고하였다. 유신은 조미갑이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쓸 만함을 알아차리고는 곧 “나는 임자가 백제의 일을 좌지우지한다고 들었는데 함께 일을 도모하고자 생각하였으나 아직 기회가 없었다. 자네가 나를 위해 다시 돌아가 이를 전해주게.”라고 말하였다. 그가 “공께서 저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일을 맡기시니 비록 죽는다 한들 후회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드디어 다시 백제로 들어가 임자에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나라의 풍속을 알기 위해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노닐다가 수십 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개나 말은 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므로 이렇게 돌아왔을 따름입니다.”라고 고하였다. 임자는 그 말을 믿고 나 무라지 않았다. 조미갑이 틈을 엿보아 알려주었다. “지난 번에 죄가 두려워 감히 똑바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신라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유신이 저를 타일러 향후에 당신께 ‘나라의 흥망은 미리 알 수 없으니 만약 그대의 나라가 망하면 그대는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우리 나라가 망하면 내 그대의 나라에 의지하겠소.’라고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임자가 이 말을 듣고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고 조미갑은 두려워 물러갔다. 처벌을 기다린지 몇 달 만에 임자가 불러서 “네가 지난 번 이야기한 유신의 말이 어떠한 것이더냐?”라고 물었다. 조미갑은 놀라 두려워하며 지난 번에 말한 것과 같이 대답하였다. 임자가 “네가 전한 것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돌아가 그렇게 고하여도 좋다.”고 말하였다. 마침내 돌아와서 김유신에게 이야기하였고 아울러 백제의 안팎 사정까지 미쳤는데, 정말로 모두 다 자세하였다. 이에 백제를 병합할 계획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³³⁾

33)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김유신은 655년에 들어와서 이제 백제를 멸망시킬 때라고 주장하였다.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김유신이 백제의 좌평 임자를 통해서 백제의 사정을 안팎으로 상세하게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백제 내부의 분열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는 김유신이 백제멸망과정에서 어떻게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움직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백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당나라의 협력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 신라가 백제 멸망 이후 나타날 국제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유신이 당시 국제관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였으며, 그것을 신라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 인물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김유신은 고구려멸망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열전에서는 백제멸망과정과는 달리 상세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지 않다.

“김유신이 일찍이 추석날 밤에 자제들을 거느리고 대문 밖에 서 있는데 문득 서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다. 유신은 고구려 첩자임을 알아차리고는 불러서 그에게 앞으로 오게 하여 “자네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유신은 “두려워할 것 없다. 다만 사실대로 이야기하거라.”라고 말하였으나 여전히 말이 없었다. 유신이 그에게 “우리 국왕께서는 위로는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으시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으셔서 백성들은 흔쾌히 모두 자신이 맡은 일을 즐기고 있다. 지금 자네가 그것을 보았으니 돌아가서 자네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거라.”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그를 위로하여 보내니, 고구려인들이 이를 듣고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유신이 제상으로 있으니 가볍게 여길 수 없구나.”라고 말하였다.”³⁴⁾

백제 멸망 직후인 661년부터 그가 연개소문 집권 이후 변화되고 있는 고구려 내부의 사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이를 바탕으로 김유신은 신라의 고구려 공격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

34)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인다.³⁵⁾ 666년의 일이다.

4월 천존의 아들 한림과 유신의 아들 三光이 모두 奈麻의 관등으로서 당나라에 들어가 宿衛하였다. 왕이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하여 당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였다.³⁶⁾

신라는 당나라에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건의하였다. 여기에는 김유신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백제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내부분열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고구려 공격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당시 당나라에 숙위하기 위해서 떠났던 김유신의 맏아들인 삼광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그가 668년에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부대를 이끌었던 유인래와 함께 당항진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멸망과정에도 이를 주도한 김유신의 역할이 컸다고 하겠다.

김유신의 외교활동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이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 신라의 대일본외교가 재개되는 데, 거기에 김유신이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미 中臣內臣이 沙門 法辨·秦筆을 사신으로 삼아 신라의 上臣 대각간 庾信에게 배 1척을 주어, 東巖 등에게 딸려 보냈다.”³⁷⁾

이는 마치 647년에 있는 김춘추의 대일본외교를 연상시킨다. 신라가 일본과 우호관계를 다시 맺기를 바랐던 것이다.³⁸⁾ 당나라와 웅진도독부의 대일본외교를 견제하기 위한 신라의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었다. 일본이 김유신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유신이 이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35) 김수태, 앞의 논문, 1993, 6~10쪽.

36) 『삼국사기』 권6, 문무왕 6년.

37) 『일본서기』 권27, 천지기 7년 9월.

38) 김은숙, 「8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 『국사관논총』 29, 1991과 노태돈, 「대당전쟁기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1997.

주류성 전투 이후 신라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내용이 김유신전에 실려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663년의 일이다.

“8월 13일 두술성에 이르니 백제인들이 왜인들과 함께 나와 진을 쳤다. 우리 군사들이 힘껏 싸워 그들을 크게 패배시켰고, 백제와 왜인들은 모두 항복하였다. 대왕이 왜인들에게 말하였다. “생각하건대 우리와 너희 나라는 바다로 가로막혀 영역이 나누어져 일찍이 서로 얽힌 것이 없었고 다만 우호를 맺고 화목함을 피하여 사신을 보내 안부를 묻고 서로 왕래하곤 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오늘 백제와 함께 악한 짓을 같이 하여 우리나라를 도모하려느냐? 지금 너희 군졸들은 내 손아귀에 있지만 차마 죽이지는 않겠으니 너희들은 돌아가 너희 왕에게 이르거라.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³⁹⁾

문무왕은 주류성 전투에서 사로잡은 왜병들을 돌려보내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드러내었다. 여기에는 이 전투에 참여했던 김유신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멸망 이후에야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일본 역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주도적으로 이끈 신라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김유신은 당시 전개되고 있던 국제정세의 흐름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며,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그 변화를 주도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Ⅲ. 공동체적 결합의 강조

김유신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인으로 공동체적 관념을 크게 강조하였다. 신라 사회 내부의 공동체적 결합 없이는 외부와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642년 김춘추가 고구려에 군사를 청하러 갈 때의 일이다.

39)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장차 떠나려고 할 때 유신에게 말하였다. “나는 공과 同體이고 나라의 팔다리 股肱이다. 지금 내가 만약 저곳에 들어가 해를 당하면 공은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유신이 말하였다. (중략) 춘추가 감격하고 기뻐하여 공과 함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마시며 맹세하였다.”⁴⁰⁾

김춘추는 김유신과 한 몸이며, 팔과 다리의 관계라고 하면서 이를 피로써 맹세하였다. 이에 김유신은 김춘추가 기한에 맞추어 돌아오지 않자 서로 간에 맺은 맹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맺어진 밀접한 공동체적 관계는 삼국통일의 주역들에게만 요구된 일이 아니었다. 앞서 인용한 것처럼, 648년 대야성 전투를 앞둔 김유신의 발언을 통해서 이를 곧바로 살필 수 있다. 신라의 백성들과, 특히 군사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는 지금 민심을 살펴보면 일을 벌일 만하다(今觀民心 可以有事)고 말한다. 또한 “군사가 이기고 지는 것은 크고 작은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따름이옵니다(兵之勝否 不在大小 顧其人心何如耳). 그러므로 紂 임금에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이 떠나고 덕이 떠났으므로, 周나라의 10명의 여진 신하들이 마음을 합치고 덕을 합친 것만(同心同德) 같지 못하였사옵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뜻이 같아서 더불어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으니(今吾人一意 可與同死), 저 백제라는 것은 죽히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김유신은 전쟁에서의 승패란 결국 민심 혹은 인심의 향배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비담의 난을 진압할 때 큰 별이 월성에 떨어지자, “길함과 불길함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부르는 것”이라는⁴¹⁾ 사실을 국왕에게 역설하였던 것이다. 외적인 조건보다도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고, 덕을 합치고, 뜻을 합친다면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41)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662년 김유신은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는 당나라 군대에게 군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행군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蘇壤에 이르러 김유신이 여러 장수와 병졸들에게 말하였다. “고구려·백제 두 나라는 우리 강역을 침입하고 업신여겨 적들은 우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 장정들을 잡아다 베어 죽이고, 혹 어린아이를 사로잡아 종으로 부린 지 오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뛰어드는 것은 큰 나라의 힘을 빌려 두 나라의 도움을 멸망시켜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맹세하고 하늘에 고하여 신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므로 언급하는 것이다. 만약 적을 가벼이 여기는 자라면 반드시 성공해 돌아갈 것이고, 만약 적을 두려워하면 어찌 포로로 잡힘을 면하겠는가? 마땅히 같은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 없으니(宜同心協力 無不以一當百)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이다.” 여러 장수와 병졸들이 “바라건대 장군의 명을 받들어 감히 살기를 탐내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⁴²⁾

김유신은 장수와 병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면(同心協力)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땅히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668년에 고구려를 공격할 때 김유신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김흠순은 그에게 가르침을 구하였다.

“대저 장수가 된 자는 나라의 방패와 성(城)이 되고 임금의 손톱과 어금니가 되어 전쟁터에서 승부를 결정지어야 하니, 반드시 위로는 하늘의 도리를 얻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얻으며 중간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네. 그런 뒤야야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必上得天道 下得地理 中得人心 然後可得成功). 지금 우리나라는 충성과 신의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백제는 오만 때문에 망하였고 고구려는 교만 때문에 위태롭게 되었다(我國以忠信而存 百濟以傲慢而亡 高句麗以驕滿而殆).”⁴³⁾

42)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김유신은 김흠순에게 무릇 장군이 된 자는 인심을 얻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지금 신라에게는 충성과 신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달리 백제나 고구려는 오만과 교만 때문에 멸망하거나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이란 사회 내부의 분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외부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문무왕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서 당시 신라의 상황에 대해서 “백성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百姓無二心), 비록 태평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이 편안하여졌다 하고겠습니다.”⁴⁴⁾라고 하여, 창업보다도 더 어려운 守成을 위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즉 그는 한 마음에서 나오는 공동체적 결합만이 신라 사회를 존재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김유신은 신라 사회가 국왕, 귀족, 평민 심지어는 노비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관념적인 유대를 형성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런데 김유신은 신라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결합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기반으로 世俗五戒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세속오계 가운데에서 事君以忠과 事親以孝의 忠과 孝, 그리고 臨戰無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충과 효로써 임전무퇴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유신의 사상형성과정에서 圓光과 그의 세속오계가 미친 영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고 설명된다.⁴⁵⁾ 이는 신라 사회에서 이러한 측면을 가장 강조한 집단이 김유신 가문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김유신의 말을 통해서 곧바로 확인된다. 낭비성 전투에서 활약할 때, 그는 “제가 평생 충과 효를 다하기를 스스로 기약하였으니 전쟁에 임해서는 용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吾平生以忠孝自期臨戰不可不勇).”라고 하였던 것이다.⁴⁶⁾ 이는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 김

43)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

44)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

45) 김복순, 앞의 논문, 83~86쪽 및 95쪽.

흠순이 “아들 盤屈에게 말하기를, “신하된 자로서는 충성만한 것이 없고 자식으로서서는 효도만한 것이 없다.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면 충과 효 두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된다.”라고 하였던 데에서도 알 수가 있다.⁴⁷⁾ 소정방의 말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정방이 이윽고 포로를 바치니 천자가 그를 위로하면서 “어찌하여 신라는 정벌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자, 정방은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을 섬기기를 마치 아 버지나 형을 섬기듯 하니,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사옵니다.”라고 말하였다.”⁴⁸⁾

신라의 사람들이 충성과 효도를 바탕으로 하나 같이 단합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⁹⁾ 때문에 김유신은 자신의 아들인 원술이 나당전쟁에서 후퇴하고 살아 돌아오자 가혹한 조치를 내렸다.⁵⁰⁾

“당나라 군사가 말갈과 함께 우리 군사들이 아직 진을 치지 못한 틈을 타서 공격하니 우리 쪽이 크게 패하여 장군 曠川과 義文 등이 죽었다 김유신의 아들 元述은 裨將이었는데 또한 전사하고자 하였으나 그를 보좌하던 淡凌이 그것을 말리며 “대장부가 죽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죽을 곳을 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죽더라도 이루는 것이 없으면 살아서 후일에 공을 도모하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말하였다. “男兒는 구차하게 살지 않거늘,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내 아버지를 뵈겠는가?”라고 대답하며, 곧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 나가려고 하였으나 담릉이 고삐를 잡아 당기며 놓아주지 않아서, 끝내 죽지 못하였다. 원술은 上將軍을 따라 蕪蕪嶺으로 빠져나오니 당나라 군사가 그들의 뒤를 쫓아 따라붙었다. 居烈州 大監 阿珍舍 일 길간이 상장군에게 “공들은 힘을 다해 빨리 가시오. 나는 나이가 이미 일흔이니 능

46)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47) 『삼국사기』 권5, 태종 무열왕 7년 7월.

48)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49) 김영하, 「유학의 수용과 지배윤리」, 『한국고대사연구』 40, 2005 ; 『신라중대사회연구』, 2007에서는 이를 忠孝兩全論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50) 김수태, 「임진무퇴의 사회사-원술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연구의 현 단계』, 2009를 참고할 것.

히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소? 지금이 무릇 내가 죽을 때요.”라고 말하며, 곧 창을 비껴들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전사하였다. 그 아들 또한 따라 죽었다. 대장군 등은 몰래 이동하여 서울(京)에 들어왔다.

대왕이 이를 듣고 유신에게 “군사들의 패배가 이와 같으니 어찌하는가?”라고 묻자, “당나라인들의 계략을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마땅히 장수와 병졸들에게 각자 요충지를 지키게 하옵소서. 다만 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하였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또한 가훈을 따르지 않았으니 죽여야 하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대왕이 “원술은 비장인데, 혼자에게만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하며 곧 사면하였다. 원술은 부끄럽고 두려워 감히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시골에서 은둔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르러 어머니를 뵙고자 청하였다. 어머니가 “부인에게 세 가지 따라야 할 의리가 있는데, 지금 이미 과부가 되었으니 마땅히 아들을 따라야 하겠지만, 원술과 같은 자는 이미 선군(先君)에게 아들 노릇을 하지 못했으니 내가 어찌 그 어미가 될 수 있으랴?”라고 말하며 마침내 만나주지 않았다. 원술이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펄쩍 뛰면서 떠나지 않았으나 부인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⁵¹⁾

김유신은 672년 나당전쟁인 석문전투에서 임전무퇴하지 않은 원술에 대해서 왕명을 욕되게 하였으며, 가훈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충과 효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들으니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 烈士의 뜻이다(吾聞 見危致命 臨難忘身者 烈士之志也).”라고 하며,⁵²⁾ 원술의 행동이 642년 고구려로 청병외교를 떠난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여 주었던 태도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 김유신의 군사적 활동을 세속오계와 연결시켜 이해할 때 세속오계가 추구하는 공동체적 관념의 강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충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³⁾ 국

51)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

52)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53) 이기백, 「유교수용의 초기형태」, 『한국민족사상사대계』 2, 1973 ; 『신라사상사연구』, 1986, 205쪽.

왕 역시 절대적인 권력자로서 보다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받들어지는 면이 이 시대에는 더 강하였던 것이다. 효 역시 가족 혹은 가문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김유신이 세속오계의 또 다른 내용인 ‘朋友有信, 즉 신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김유신이 김흠순에게 충과 함께 信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신은 비령자가 힘써 싸우고 적진 깊숙이 들어갈 뜻이 있음을 알고, 불려서 이르기를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낙엽 짐을 알 수 있는데(歲寒然後 知松栢之後彫), 오늘의 일이 급하다. 그대가 아니면 누가 용기를 내고 기이함을 보여 못 사람의 마음을 분발시키겠는가?”라고 하였다. 인하여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간절함을 보였다.비령자가 두 번 절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일을 저에게 맡기시니, 저를 알아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죽음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고 하였다(獨以事屬我 可謂知己矣 固當以死報之). 적진에 나가면서 종 합절(合節)에게, “나는 오늘 위로는 국가를 위하여, 아래로는 나를 알아주는 분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吾今日 上爲國家 下爲知己 死之).”⁵⁴⁾

“유신이 “당나라 군대는 군량이 떨어져 대단히 고생하고 있을 터이니, 마땅히 이를 먼저 알려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보기감(步騎監) 열기(裂起)를 불러 “나는 젊어서부터 자네와 함께 놀아서 자네의 지조와 절개를 알고 있네(吾少與爾遊 知爾志節). 지금 소정방 장군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네. 자네가 가주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열기는 “제가 비록 어리석지만 외람되게도 중군(中軍)의 직에 있고 하물며 송구스럽게도 장군의 영(令)을 받았으니, 비록 죽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새로이 태어나는 해라고 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⁵⁵⁾

647년에 있는 丕寧子의 죽음과 관련해서 또한 살필 수가 있다. 비령자는 김유신을 知己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가와 지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충과 신을 의미한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신’이 강조되고 있다. 열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54) 『삼국사기』 권47, 비령자전.

55)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있다. 김유신이 젊었을 때 열기와 함께 놀았다는 점에서 서로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은 '봉우'의 관계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김유신이 말한 열기의 지조와 절개란 바로 충과 신을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신이라는 횡적인 관계가 종적인 끈을 통해서 최종적인 한 곳으로 연결되는 곳은 충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⁵⁶⁾

그렇다면 세속오계 안에서 충과 효, 신과 임전무퇴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⁵⁷⁾ 그리고 신이 충과 효와 같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횡적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나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회 안에서 공동체적 관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었다.⁵⁸⁾ 즉 신은 공동체적인 관념에 밀받침된 국가적인 결속의 매개체로서의 구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담당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까닭에 김유신은 충과, 효, 그리고 신을 바탕으로 종적으로나 횡적으로나 신라라는 공동체의 결합을 크게 강조하였던 것이다.⁵⁹⁾

이때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김유신의 유교적 정치 지향과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할 측면이 있다.⁶⁰⁾ 그가 신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고 줄기차게 노력한 인물이라는 점에 우선 주목하였다. 김유신이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처음에는 화랑 시절에는 용화낭도의 세계였다고 설명한다. 이후 그가 점차 장성하

56) 이기백, 앞의 논문, 201~203쪽. 이는 진흥왕대에 만들어진 마운령비에서 '忠信精誠'이라고 하여, 공훈을 표창할 때 '충'과 '신'이 제일 먼저 강조된 사실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57) 김수태, 앞의 논문, 1993을 참고할 것.

58) 이기백, 앞의 논문, 208쪽.

59) 주보돈은 「김유신」, 79쪽에서 충효와 함께 '인(仁)'을 근간으로 삼는 유학적 질서가 작용하는 사회로 바꾸어가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상훈 역시 앞의 논문, p.45에서 김유신이 신라의 삼국통일과정에서 '인'을 추구하고 실천한 인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유신에게서 유교적 덕목으로서 '인'을 바로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다.

60) 주보돈, 「김유신의 정치지향-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신라사학보』 11, 2007을 참고할 것.

면서 그것이 실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시 확산일로에 있던 유교사상에 입각한 王道政治를 대안으로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그는 즉시 김춘추와 정치적 동업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유교에 바탕을 둔 왕도국가의 건설이 김유신에게 새로운 이상세계였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김유신이 추구했던 왕도정치 의미의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세속오계의 사상적 기반으로 가장 강조되는 충 사상의 다른 반면이 유교적인 왕도정치의 이념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이다.⁶¹⁾ 이것은 「마운령순수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미 진흥왕이 왕도정치를 지향하려는 자세를 나타내주었던 점과도 연결된다. 충이 국민이 국왕에 대하는 상향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왕도정치는 국왕이 국민에 대하는 하향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을 중심으로 한 실천도덕이나 수기안민을 지향하는 왕도정치의 이념이나 모두가 지배자적인 것으로, 공동체적인 관념에 뒷받침된 국가적인 결속의 매개체로서의 구실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김유신에게서 찾아지는 왕도정치란 신라사회의 발전에 적응하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관념적으로는 공동체적인 것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었다. 그것은 김유신이 세속오계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결함을 이루고자 하였던 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유신의 사상적 기반으로 유교는 아직 독자적인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것은 원광이 유교에도 매우 밝았다는 사실과 비슷하다고 이해된다. 그 자신은 승려였지만, 세속인에게 오히려 이러한 유교의 덕목이 적합하다고 믿고서 이를 주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신라사회가 요구하는 덕목을 유교의 그것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물론 김유신을 통해서 신라의 지배층이 지니고 있던 이상국가의 영상이 유교적인 색채를 띠었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정치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는 있다. 그러나 유교는 여전히

61) 세속오계와 연결되는 왕도정치에 대해서는 이기백, 앞의 논문, 206~207쪽이 있다.

국가 전체의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이 점에서 공동체적인 관념이 짙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원술이나 강수가 보여주었듯이, 중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유교는 집단이라는 공동체적인 관념을 거부하는 개인의 발견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⁶²⁾ 따라서 김유신의 사상적 기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IV. 삼한통일론의 제시

김유신의 활동과 관련해서 크게 의미를 두어야 할 사실은 그가 삼국통일론을 제시한 점일 것이다. 그가 언제 어떻게 삼국통일론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⁶³⁾

여기에는 김유신이 처음부터 삼국통일을 의도하고 전쟁을 벌였는가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따른다.

“진평왕 건복 28년 신미(611년) 공의 나이 17세에 고구려·백제·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쳐들어온 적을 평정하겠다는 뜻을 가지고(有平寇賊之志) 홀로 中嶽 석굴로 들어가 몸을 깨끗이 하고는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였다. “敵國이 무도하여 승냥이와 호랑이처럼 우리 영역을 침략하여 어지럽힘으로써 편안한 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낱 미미한 신하로 재주와 힘은 헤아릴 수 없이 적지만 재앙과 난리를 없애고자 마음먹었으니 오직 하늘은 굽어살피시어 저를 도와주소서. (중략) 노인은 “나는 머무는 곳이 없고 인연에 따라 가고 멈추며 이름은 곧 難勝이다.”라고 말하였다. 공이 이를 듣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두 번 절하고 나아가 말하였다. “저는 신라인입니다. 나라의 원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와서 만나는 것이 있기를 바랄 따름이었습니다. 엿드려 빌건대 어르신께서는 제 정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方術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 공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6~7번에 이르렀다. 노인이 이에 “자네는 어리지만 삼국을 병합할 마음

62) 김수태, 앞의 논문, 1993을 참고할 것.

63) 이하의 내용은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2014를 김유신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을 가지고 있으니 또한 장하지 아니한가?”라고 하며(子幼而有并三國之心 不亦壯乎), 곧 비법(秘法)을 가르쳐 주면서 “삼가 함부로 전하지 말게. 만약 의롭지 못한 데 쓴다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을 것이네.”라고 말하였다.”⁶⁴⁾

김유신이 17세인 611년에 삼국을 병합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기록을 따른다면 김유신의 활동 초기부터 삼국통일의 의지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화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삼국이란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를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삼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구려, 백제, 말갈을 삼국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적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통일이나, 통합이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병합이라고 말한다. 적을 평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백제나 고구려에 대한 멸망을 곧바로 신라의 통일이나 통합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이나 통합은 병합이나 멸망과는 다르다는 점에서이다. 그것은 그 다음의 단계에서 추구할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김유신이 처음부터 고구려나 백제 모두를 함께 병합할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삼국유사』 1, 기이, 김유신조에 의하면 김유신이 18세 때 고구려와 백제를 치는 일을 그가 밤낮으로 깊이 모의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다음 백석의 활동과, 추남 설화로 알려진 그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고구려 병합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추남 설화의 형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따르기는 어렵다. 642년에 들어와서 김춘추가 고구려에 청병하러 떠난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 신라의 국력이 고구려를 칠 여력이 없었다. 물론 642년에도 “저의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두 임금의 뜰을 짓밟을 것입니다.”라고 하여,⁶⁵⁾ 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의 병합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64)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65)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때문에 김유신에게 병합의 우선 대상으로는 백제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648년 이후에나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싶다.⁶⁶⁾ 그러한 사실은 김유신전에 보이듯이, 당나라 태종과 김춘추가 만났을 때 백제정벌만이 논의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살필 수가 있다. 거기에는 신라의 국가적 성장도 작용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 경우에도 그 실행 여부는 당나라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이에 655년에 김유신에 의하여 신라의 백제 병합이 결정되었지만, 660년에 들어와서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를 신라가 백제라는 적을 멸망시킨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더욱 사정이 달랐다. 문무왕이 설인귀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당시 당나라 태종과 김춘추는 고구려에 대한 침공까지를 밀약했다고 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나라의 바람이었을 것이다. 물론 신라에 의해서도 662년에 들어오면 고구려에 대한 멸망이 언급되고 있다. 김유신이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에게 군량을 운송할 때의 일이었다.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에 나가는 것은 대국의 힘에 의지하여 두 나라의 도읍을 함락시켜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함이다.”라고 하여,⁶⁷⁾ 고구려 병합이란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나라의 요구에 의하여 군량 수송작전이 악조건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신라의 군사를 독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후 김유신은 고구려의 내부 정세 변화를 계속해서 파악한 다음 668년에 들어와서 고구려에 대한 침공을 마침내 결정하였다. 이는 백제 멸망을 대가로 당나라에 약속한 고구려 멸망에 대한 협력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가 약속한 대로 평양 이남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대해서 백제통합 전쟁론자와 삼국통일 전쟁론자 사이에 여러 논란이 있지만, 성덕왕 대 신라가 패강 이남의 지역을 당나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⁶⁸⁾ 이에 신라는 당나라의 고구려 멸망작전

66)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67)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에 협력함으로써 고구려 땅의 일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고 하더라도, 김유신이 삼국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를 추진한 것으로 말하기는 역시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고구려가 멸망된 다음 해인 669년에 나온 문무왕의 교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월 21일에 대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다음과 같이 敎하였다. “지난날 신라는 兩國에 끼어 북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침범하여 잠시도 편안한 해가 없었다. 戰士들의 뼈가 드러나 들판에 쌓였으며, 몸과 머리가 나라 사이의 경계에 나뉘었다. 先王께서는 백성이 잔혹하게 해를 입음을 가엾게 여겨 千乘의 귀중함을 잊으시고 바다를 건너 入朝해서 천자의 조정에 군대를 청하셨다. 이는 본래 두 나라를 平定 兩國하여 영원히 싸움이 없게 하고,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한을 설욕하며, 백성들의 남은 목숨을 온전히 하려는 것이었다. 선왕께서 백제는 비록 평정하셨지만, 고구려는 아직 멸망시키지 않았는데(百濟雖平 高句麗未滅), 과인이 적을 무찔러 나라를 안정되게 하려던 유업을 이어받아 마침내 선왕의 뜻을 이루어냈다. 지금 두 적이 이미 평정되어 사방이 조용하고 편안하다.”⁶⁹⁾

여전히 백제나 고구려를 ‘양국’ 혹은 ‘양적’이라고 하면서, 평정했다거나 멸망시켰다고 한다. 양국이라고 하여 삼국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의 지배층은 고구려가 멸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69년에 이르기까지 이를 삼국통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을 인식하고 있던 김유신에게서 커다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673년에 김유신이 문무왕에게 언급한 유언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신은 어리석고 못났으니 어찌 능히 나라에 이로울 것이 있겠사옵니까? 다행히도 밝으신 임금께서 저를 등용하고서는 의심하지 않으셨고 일을 맡겨서는 다른

68) 노태돈, 「삼국통일이란 개념은 성립하는가?」, 『삼국통일전쟁사』, 2009, 31쪽.

69) 『삼국사기』 권6, 문무왕 9년.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으니 그런 까닭에 대왕의 현명함에 기대어 자그마한 공이라도 세울 수 있었나이다. 삼한(三韓)이 한 집안을 이루었으니(三韓爲一家)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비록 태평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또한 세상이 안정되었다고는 할 만하옵니다. 신이 예로부터 대통을 이은 임금들을 보건대 처음에는 못하는 경우가 없지만, 끝까지 잘하는 경우는 드물어 여러 대의 공적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니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⁷⁰⁾

김유신이 “삼한이 한 집안을 이루었으니”라고 하여, ‘삼한일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三韓一統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삼한통일론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삼한통일론은 김유신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삼국통일론이 처음으로 김유신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⁷¹⁾ 삼국통일론과의 관계이다. 삼국통일론이 우선이냐, 아니면 삼한통일론이 우선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유신전에서 나오는 삼한통일론은 신라에서 삼국통일론을 거치면서 삼한통일론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삼한통일론보다 삼국통일론이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신미(671년)에 당나라가 조현을 장수로 삼아 보내고 또한 군사 5만 명으로 쳐들어왔는데, 그 법을 썼더니 배들이 전과 같이 침몰하였다. 이때 한림량(박문준이 인문을 따라 옥 중에 있었는데, 고종이 문준을 불러 묻기를, “너희 나라에는 무슨 비법이 있기에 대군을 두 번이나 발했는데도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였다. 문준이 아뢰기를, “陪臣 등은 상국에 온 지가 10여 년이나 되었으므로 본국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멀리서 한 가지 일을 들었는데, 상국의 은혜를 두터이 입어서 삼국을 통일하였기에(一統三國) 그 은덕을 갚기 위하여 남산 남쪽에 天王寺를 새로 짓고, 황제의 만년 수명을 축원하는 법석을 오래 열었다는 사실 뿐입니다.”라고 하였다.”⁷²⁾

70)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

71) 이에 대해서는 김영하, 「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 1 - 최근의 사료 비판과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9, 2018과 김영하, 「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 2 - 핵심 사료의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671년에 박문준은 당나라 고종에게 본국인 신라의 사정을 멀리서 들었다고 하면서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일통삼국'을 언급하고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고 하는 기록으로는 이것이 처음이다. 이것은 세 개의 국가가 통일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고구려와 백제를 '양국'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신라까지를 포함해서 '삼국'으로 지칭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세 국가의 통일을 말하는 '일통삼국'이란 표현은 『삼국유사』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신문왕) 때에 당 고종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의 성고는 어진 신하 위징, 이순풍 등을 얻어 마음을 합하고 덕을 같이하여 천하를 통일(一統天下)하였기에 태종 황제라 하였지만, 너희 신라는 바다 밖에 있는 조그만 나라임에도 태종의 호를 사용하여 천자의 칭호를 참칭하니 그 뜻이 불충하므로 속히 그 명호를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신라왕이 글을 올려 답하기를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聖主 김유신을 얻어 삼국을 통일하였기(一統三國) 때문에 태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⁷³⁾

당나라와 신라의 통일이 비교되어서 서술되고 있다. 천하와 삼국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통천하'와 '일통삼국'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때 김유신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었다고 한다. 이는 당의 천하통일이 의미가 있듯이, 신라의 삼국통일 역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마도 당의 천하 가운데 신라가 그 한 부분인 삼국을 통일한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일통삼국'이란 중국의 천하관을 의식한 신라의 천하관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김유신 역시 671년 이후에는 신라가 주도하여 추진한 백제와 고구려 멸망을 삼국통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신라가 671년에 들어와서 삼국통일론을 표방한 계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필 수가 없다. 그러나 고구려 멸망 이후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

72) 『삼국유사』 권2, 기이, 문효왕 법민조.

73) 『삼국유사』 권1, 기이, 태종 춘추공조.

동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671년 7월의 일이다.

“7월에 이르러 당나라 조정에 사신으로 갔던 金欽純 등이 땅의 경계를 그린 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도를 살펴보니 백제의 옛 땅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하(黃河)가 아직 떠와 같이 되지 않았고 泰山이 아직 솟들같이 되지 않았는데, 3~4년 사이에 한 번은 주었다 한 번은 빼앗으니 신라 백성은 모두 본래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모두 ‘신라와 백제는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수인데, 지금 백제의 상황을 보자면 따로 한 나라를 세우고 있으니, 백 년 뒤에는 자손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먹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신라는 이미 중국의 한 주(州)이므로 두 나라로 나누는 것은 합당치 않다. 바라건대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길이 뒷날의 근심이 없게 하자’고 하였습니다(今見百濟形況 別當自立一國 百年已後 子孫必見吞滅 新羅既是國家之州 不可分爲兩國 願爲一家 長無後患).”⁷⁴⁾

신라는 당시 웅진도독부의 상황을 백제가 다시 부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로 일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신라는 그렇게 다시 두 나라로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양국’을 ‘일가’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이른바 ‘양국일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양국평정론’이 ‘양국일가론’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일가론’이 백제만이 아니라, 고구려까지를 포함하는 ‘삼국통일론’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670년대에 들어와서 신라는 옛 백제지역을 완전히 병합하고, 금마저에 고구려 유민들에 의한 고구려국을 건설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⁷⁵⁾

이러한 가운데 673년에 들어와서 김유신이 삼한통일론을 새롭게 언급한 것이다. 이제 국가의 통일만이 아니라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종족

74)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75) 노태돈 역시 「삼한일통 의식의 형성시기에 대한 고찰-일본서기 ‘삼한’ 기사의 분석을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 16, 2016, 124쪽에서 “삼한개념은 신라가 669년부터 당과의 대결을 벌어나감과 함께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려 함에 따라 신라인의 의식에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자리 잡아가게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까지의 통일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삼한통일론이란 세 개 국가의 단순한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삼국이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질적인 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세 국가의 영토와 그 주민을 합친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삼한통일론이었던 것이다.

김유신에 의하여 삼국통일론에 이어 삼한통일론이 새롭게 강조된 것은 대외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나라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신라의 입장에서 삼국인들의 단결을 바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이를 지향한 측면이 있었다. 삼국통일론만으로는 나당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대내적인 필요성이 더욱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내적으로 신라 사회 내부의 통일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통일왕조를 강조하게 된 신라에게 삼국통일론이란 외형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삼한통일론은 그 내부의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논리였던 것이다. 그러한 내부의 통일 없이는 삼국의 진정한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에 김유신은 유언을 통해서 문무왕에게 수성을 위해서 삼한통일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후 김유신과 관련해서 삼한통일론이 계속해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⁷⁶⁾ 신문왕대에 들어오면 삼한 관련 기사는 더욱 빈번하게 찾아지고 있다.

“왕과 여러 신하가 함께 의논하고서 대답하였다. “우리나라의 선왕 춘추의 시호가 우연히 성조의 묘호와 중복되었다. 조칙으로 고치라고 하니, 내 어찌 감히 명령을 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생각하건대 선왕 춘추는 매우 훌륭한 덕을 지닌 분이시다. 더구나 살아생전에 김유신이라는 어진 신하를 얻어 한 마음으로 정사에 힘써 삼한을 통일하였으니(一統三韓) 그가 이룬 功業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돌아가셨을 때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슬픔과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받들어 올린 시호인데, 성조의 묘호와 중복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지금 교칙

76) 노태돈, 앞의 논문, 122쪽과 124쪽에서는 신문왕 대인 682년에 세워진 문무왕릉비에서도 삼한이란 용어가 찾아진다는 가능성에 크게 주목한다. 그리고 삼한통일론을 9주와 9서당 설치의 이념적 배경으로 이해한다.

을 들으니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바라건대 사신께서는 돌아가 궁궐 마당에서 復命할 때 이상과 같이 아뢰어 주시오.” 뒤에 다시 별도의 조칙이 없었다.”⁷⁷⁾

신문왕대 태종 묘호와 관련된 논란이 일어났을 때 김춘추와 김유신과 관련해서 삼한통일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듬해 임오 5월 초하루에 -어떤 책에는 천수(天授) 원년(690년)이라고 했으나 잘못이다. - 해관 파진찬 박숙청이 아뢰기를, “동해 중의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일관 김춘질 또는 춘일에게 점을 치도록 하였다. 그가 아뢰기를, “돌아가신 부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또 김공유신(도 33천의 한 아들로서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 성인이 덕을 같이 하여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어주려 하시니, 만약 폐하께서 해변으로 나가시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보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⁷⁸⁾ 부인은 꿈을 꾸는 날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아이를 낳자 이름을 죽지라고 하였다. 장성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부수가 되어 유신공과 함께 삼한을 통일하였고, 진덕·태종·문무·신문의 4대에 걸쳐 재상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⁷⁹⁾

신문왕 대인 만파식적 관련 기사에서도 김춘추가 아니라, 문무왕과 김유신과 관련해서 삼한이 나오고 있다. 죽지랑의 경우에도 그가 김유신과 함께 삼한통일을 이룬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⁸⁰⁾

이와 같이 김유신이 제시한 삼한통일론은 삼국통일론을 보강해주는 이론으로 작용하였으며, 이후 서로 맞물리면서 전개되어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삼국통일론과 삼한통일론은 혼용되면서 사용되었을 것이며, 아마도 삼한통일론 안으로 삼국통일론이 들어가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77) 『삼국사기』 권8. 신문왕 13년. 이러한 내용은 『삼국유사』 1, 기이, 태종춘추공조에서 “왕은 유신과 더불어 꾀와 힘을 다하여 三韓을 통일하니(一統三韓) 나라에 큰 공로를 세웠으므로 묘호를 태종이라 한다.”에서도 찾아진다.

78) 『삼국유사』, 권2 기이 만파식적조

79) 『삼국유사』 권2 기이 효소왕 죽지랑조.

80) 『삼국유사』에서 빈번하게 찾아지는 삼한통일론을 다룬 글로는 김수태, 『삼국유사』의 편목구성과 삼한·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41, 2017이 있다.

V. 삼국통일론의 형성과 나당관계

그러면 김유신이 ‘양국평정론’에서 ‘삼국통일론’으로 바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당관계의 변화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김유신의 당나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도 바뀌었던 것이다.

김유신의 대당인식에 대해서는 사상적 배경과 관련해서 그에게 뿌리 깊은 반당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⁸¹⁾ 신라인이라는 투철한 의식이 나당연합과 나당전쟁에 있어 반당의식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이에 그가 자주국가로서의 신라가 서기 위해서는 당과의 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원효나 명랑과 같은 승려들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

김유신의 대당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에 의하면 그가 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로 이해되고 있다.⁸²⁾ 처음 당나라와 연합할 때에는 긍정적이었지만, 백제 멸망을 전후로 하여 당나라에 대한 그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백제 멸망 이후 전개된 신라의 대외정책에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신라가 당을 선제공격하는 나당전쟁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적어도 669년까지는 신라가 당나라에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찾아진다.⁸³⁾ 그와 같은 외교정책을 펼친 배경에는 648년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맺은 밀약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당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김유신이 백제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특히 백제 멸망 직후부터 갑자기 당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유신 가문이 ‘유신’이란 중국의 문장이 이름을 선택하는 등 중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과 관련해서이다.⁸⁴⁾

81) 김복순, 앞의 논문, 97~105쪽.

82) 전경효, 앞의 논문을 참고할 것.

83) 김정민, 「669년 신라의 사죄사 파견과 나당전쟁의 발발배경」, 『한국사연구』 178, 2017.

김유신의 여러 발언들에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진덕여왕대 김춘추와 함께 당나라의 제도를 새롭게 수용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유신이 당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일반적으로 백제멸망과정에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일어났던 충돌에 주목하고 있다. 소정방이 군기(軍期)를 어긴 김문영을 처형하려고 했을 때의 사건을 들고 있다. 이에 김유신이 “반드시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치른 후에 백제를 깨뜨리겠다.”고 하여,⁸⁵⁾ 김문영을 구해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써 김유신의 대당인식이 곧바로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김유신이 김문영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당나라를 크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백제멸망과정에서 김유신과 소정방은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오히려 협력하는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라군이 진군하여 당군과 함세해 진구(津口)에 이르러 강가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홀연히 새 한 마리가 소정방의 진영 위를 빙빙 날아다녔다. 사람을 시켜 그것을 잡치게 하니, “반드시 원수가 상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소정방은 두려워하여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그만두려고 하니 유신이 소정방에게 일러 말하기를 “어찌 날아다니는 새의 괴이함으로 인하여 천시(天時)를 어길 수 있으리오. 하늘에 응하고 민심에 순응하여 지극히 어질지 못한 자를 정벌하는데 어떻게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겠소.” 하고 신검(神劍)을 뽑아 그 새를 겨누니 새는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긴 채 좌중 앞으로 떨어졌다. 이에 소정방은 강의 왼쪽으로 나와서 산을 등진 채 진을 치고 백제군과 싸우니 백제군이 크게 패하였다.⁸⁶⁾

김유신은 백제에 대한 공격을 두려워하는 소정방을 격려하며, 그에게

84) 후보돈, 앞의 논문, 2007, 23~24쪽과 김복순, 앞의 논문, 80~83쪽.

85) 『삼국사기』 권5, 태종 무열왕 7년 7월.

86) 『삼국유사』 권1, 기이, 태종 춘추공조.

백제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김유신의 부정적인 대당인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백제멸망 직후에 나오는 당나라의 신라침공 기사이다.

당나라인들은 이미 백제를 멸망시키고 사비의 언덕에 진영을 설치하여 신라를 침략하려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우리 왕이 이를 알고서 군신들을 불러 대책을 물으니, 다미공이 나아가 “우리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백제인인 척하게 하여 그들의 옷을 입히고 마치 적의 무리인 양 행동하도록 한다면 당나라인들은 반드시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과 싸운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김유신이 “이 말은 취할 만하니 청컨대 이를 따르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중략) 당나라인들이 우리가 당나라 군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음을 염탐을 통해 알고는 백제 왕과 신료 93명, 병졸 2만 명을 붙잡아 9월 3일 사비에서 배를 띄워 돌아갔고, 낭장 유인원 등을 남겨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소정방이 이윽고 포로를 바치니 천자가 그를 위로하면서 “어찌하여 신라는 정벌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자, 소정방은 “신라는 그 임금의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을 섬기기를 마치 아버지나 형을 섬기듯 하니,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사옵니다.”라고 말하였다.⁸⁷⁾

백제가 멸망한 후 당나라가 곧바로 신라를 침략할 계획을 은밀히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당나라 고종이 소정방에게 왜 신라를 정벌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던 사실도 이와 관련해서 부각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백제부흥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된 상황을 고려할 때 당나라가 백제 멸망 직후 신라침공까지 의도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도 당나라의 최종목표는 백제 멸망이나, 신라침공이 아니라 고구려 멸망이었던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⁸⁸⁾ 이를 위해서라도 당나라로서는 신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 기사가 모두 김유신전에서만 찾아지는 내용이라는 점에

87)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88) 배근홍, 「신라 문무왕대의 대당외교」, 『신라문화』 16, 1999, 73쪽에서는 당시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군사력이 신라까지를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유신이 아니라 다미공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였으며, 신라가 당나라의 도발을 유도하는 내용 등에서 그러하다. 물론 이들 기사가 일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임은 분명하겠지만, 아마도 나당전쟁이 발생한 이후 신라와 당의 대립을 소급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馮師訓墓誌銘」에서 659년에 소정방이 雞林道大總管을 역임했다고 기록된 사실과 관련해서 ‘계림도’가 당의 신라 정복 의지가 반영된 행군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⁸⁹⁾ 이 역시 그러한 사실만으로써 당나라가 처음부터 백제와 신라를 정복할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신라가 백제 멸망뿐만 아니라, 고구려 멸망 때까지 당나라와 계속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백제 멸망 직후 사비 지역에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가 동시에 주둔했던 사실이 이를 잘 말하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유신에게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대왕이 군신들에게 “이와 같으니 어찌하면 좋겠소?”라고 물으니 모두 적의 영역에 깊이 들어가 군량을 나르는 것은 형편상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대왕이 이를 근심하여 탄식하였다. 김유신이 앞으로 나아가 대답하였다. “신이 과도한 대우를 받았사옵고 황송하게도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의 일이라면 비록 죽는다고 한들 피하지 않겠나이다. 지금이야말로 이 늙은 신하가 절의를 다하여야 할 때입니다. 마땅히 적국으로 향하여 소정방 장군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나이다. (중략) 유신이 여러 장수와 병졸들에게 말하였다. “고구려·백제 두 나라는 우리 강역을 침입하고 업신여겨 적들은 우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 장정들을 잡아다 베어 죽이고, 혹 어린아이를 사로잡아 종으로 부린 지 오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뛰어드는 것은 큰 나라의 힘을 빌려 두 나라의 도읍을 멸망시켜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기 때문이다(欲藉大國之力, 滅二城, 以雪國讎). 마음으로 맹세하고 하늘에 고하여 신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므로 언급하는 것이다.”⁹⁰⁾

“또한 군사를 일으켜 당군과 합세하고자 유신이 먼저 然起와 兵川 등 두 사람을 보내 합세할 기일을 묻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난새와 송아지 두 가지 물건을 그

89) 이민수, 「백제 멸망기 당의 신라침공계획」,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90)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려 돌려보내었다.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사람을 시켜 원효 법사에게 청해 묻자, 법사가 이를 해석하여 “속히 병사를 돌이켜라. 송아지와 난새를 각각 그린 것은 두 개로 끊어짐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유신은 군사를 돌려 패강을 건너려 할 적에 “오늘 뒤에 처져서 강을 건너는 자는 베리라.”하였다.⁹¹⁾

김유신전에서는 661년 평양까지의 군량수송이 모두 어렵다고 말할 때 김유신만이 소정방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하면서 직접 나섰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는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까지 당나라라는 대국의 힘이 필요함을 함께 역설하였다. 신라의 국왕과 신하들만이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당나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다. 두 번째 사료는 소정방이 고구려 공격에 참여하려는 김유신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만큼 김유신과 소정방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김유신은 668년에 와서도 자기를 대신해서 고구려 공격에 나서는 김흠순에게 “하물며 큰 나라의 밝은 천자의 위엄에 의지하고 있음에라!(況大國明天子之威稜哉) 가서 힘써 그르침이 없도록 하라.”고 하며,⁹²⁾ 고구려의 멸망을 위해서는 당나라와 신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한 신라는 백제를 평정한 때부터 고구려 평정을 끝낼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힘을 바쳐 당나라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로 하루아침에 버려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억울함이 있더라도 끝내 배반할 마음은 없었습니다.”라고 하여,⁹³⁾ 신라가 고구려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당나라에게 충실하게 협력한 사실을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던 김유신이 대당인식을 바꾼 시기는 고구려 멸망 직후였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91) 『삼국유사』 권1, 기이, 태종 춘추공조.

92)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

93)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실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⁹⁴⁾ 전쟁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게는 별다른 현상 변화가 없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당나라가 약속한 것처럼, ‘평양 이남 백제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밀약의 내용만으로 볼 때 당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러한 지역을 신라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서로 간에 약속한 사항으로써 고구려의 멸망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당나라가 더 이상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신라 역시 내부로 향하게 될 때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왜 백제와 고구려와의 전쟁을 벌였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신라 사회를 설득하면서 백제와 고구려의 이끌어왔던 김유신으로서는 이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나라는 김유신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당나라는 백제의 멸망 이후 설정했던 자기 주도 하의 국제질서를 고구려 멸망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른바 기미정책이었다. 이에 당나라는 기미정책을 김유신에게도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당나라와 신라가 백제를 합동으로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이 싸움에서 김유신의 공이 많았다. 이에 당나라 황제가 그것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 그를 포상하고 칭찬하였다. 장군 소정방은 김유신·김인문·김양도 세 사람에게 “나는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는 명을 받았소. 지금 백제의 땅을 얻었으니 공들에게 나누어 주어 식읍으로 삼게 하여 그 공에 보답하고자 하니 어떻소?”라고 말하였다. 김유신은 대답하였다. “대장군께서 황제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저희 임금의 기대에 부응해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저희 임금과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기뻐서 손뼉 치느라 다른 겨를이 없거늘, 저희들만 유독 내려 주시는 것을 받아 스스로를 이롭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의리라 하겠습니까?” 끝내 받지 않았다.”⁹⁵⁾

백제 멸망 직후 소정방은 김유신에게 점령한 백제 땅을 식읍으로 주

94) 김수태, 앞의 논문, 2014, 52~53쪽.

95)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상.

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유신은 신라 지배층의 분열을 도모하고자 하는 당나라의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리고서는 거부하였다.⁹⁶⁾

김유신을 향한 당나라의 노력은 이후에도 두 차례나 계속되었다. 당나라는 665년에 이르러 “고종이 사신 梁冬碧·任智高 등을 보내 예물을 가져왔고 아울러 김유신을 奉常正卿 平壤郡 開國公 식읍 2천 호에 책봉하였”다.⁹⁷⁾ 김유신을 책봉하고 식읍을 주었다. 668년에 들어와서 고구려가 멸망하자,

“총장 원년(668년) 당나라 황제가 이미 영공의 공을 포상하였고, 마침내 사신을 보내 신라가 군사를 보내 싸움을 도운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금과 비단을 내려 주었다. 또한 김유신에게 조서를 내려 칭찬하고 표창하였다. 또 당나라에 들어와 황제를 찾아뵙도록 일러주었으나 끝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 조서는 집안에서 전해오다가 5세손 때 이르러 잃어버렸다.”⁹⁸⁾

라고 하여, 김유신에게 조서를 내려 당나라에 입조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룬 주역들 가운데에서 김유신만이 당나라에 가보지 않은 인물이었다. 이 역시 당나라가 김유신에게 당나라가 추구하는 국제질서를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김유신을 친당적인 인물로 만들려는 당나라의 거들된 회유책이기도 하였다.⁹⁹⁾ 사실 당나라는 신라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었다.

“영공이 비밀리 ‘신라는 이전에 군대 동원의 약속을 어겼으니, 또한 그것을 헤아려 정할 것이다.’라고 하자, 신라 군사들은 이 말을 듣고 다시 두려움이 더했습니다. 또한 공을 세운 장군들이 모두 기록되어 이미 당나라에 들어갔는데, 당나라 수도에 도착하자 곧 ‘지금 신라는 아무도 공이 없다.’고 하여, 군장들이 되돌아오니 백성들이 더욱 두려움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열성)은 본래 신라 땅이었는데

96) 김수태, 「침공군 사령관 소정방의 좌절」, 『내일을 위한 역사』 17, 2004, 96~100쪽.

97)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98)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

99) 김복순, 앞의 논문, 101쪽.

데 고구려가 쳐서 빼앗은 지 30여 년 만에 신라가 다시 이 성을 되찾아 백성을 옮기고 관리를 두어 수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이 성을 가져다 고구려에 주었습니다. (중략) 총장 원년(668)에 이르러 백제가 함께 맹세했던 곳에서 국경을 옮기고 꾀말을 바꿔 농토를 빼앗았으며 우리 노비를 달래고 우리 백성들을 피어 자기 나라 안에 감추고서 여러 번 찾아도 마침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식을 들으니 ‘당나라가 배를 수리하는 것은 겉으로는 왜국을 정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불안해하였습니다.”¹⁰⁰⁾

당나라가 김유신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신라의 장군과 군사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오래전의 일인 백제 멸망 당시의 사건을 다시 거론하면서 고구려 멸망에서의 신라의 공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욱이 신라가 회복한 비열성을 다시 고구려에 돌려주었다든지, 앞으로 신라를 침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 역시 김유신과 신라에게 당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압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은 웅진도독부를 통해서도 살필 수가 있다.

“또한 백제의 여자를 데려다 신라의 한성 도독 박도유에게 시집을 보내고 함께 모의하여 몰래 신라의 병기를 훔쳐서 한 주(州)의 땅을 갑자기 치기로 하였는데, 때마침 일이 발각되어 도유의 목을 베어서 피하였던 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략) 지난해 9월에 이러한 사실을 모두 기록하여 사신을 보내 아뢰게 하였지만,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되돌아왔으므로 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역시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는 바람이 차고 파도가 세어 미처 아뢰 수 없었는데, 백제가 거짓을 꾸며 ‘신라가 배반하였다.’고 아뢰었습니다. 신라는 앞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의 뜻을 잃었고 뒤에는 백제의 참소를 당하여, 나아가고 물러감에 모두 허물을 입게 되어 충성스러운 마음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상모략이 날마다 황제의 귀에 들리니 두 마음 없는 충성심을 일찍이 한 번도 알릴 수 없었습니다.”¹⁰¹⁾

앞의 사료에서 기록된 것처럼, 당나라는 웅진도독부가 빼앗아갔던 신

100)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101)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라의 땅을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성 도독인 박도유에게 신라를 배반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¹⁰²⁾ 더욱이 웅진도독부의 백제유민은 신라의 대당외교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신라가 당나라를 배반한다고 알렸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당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때(668) 당나라의 遊兵과 여러 장병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장차 우리를 습격 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왕이 알고 군사를 발하였다. 이듬해에 당나라의 高宗이 인문 등을 불러서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군사를 칭해 고구려를 멸하고도 우리를 해치려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라고 하고, 곧 감옥에 가두고 군사 50만 명을 조련하여 薛邦을 장수로 삼아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때 의상 법사가 서쪽 당나라로 가서 유학하고 있다가 인문을 찾아보았는데, 인문이 그 사실을 알렸다. 의상이 곧 귀국하여 왕에게 아뢰니, 왕이 매우 염려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방어책을 물었다.”¹⁰³⁾

“또한 신라고전에 이르기를 “소정방이 이미 백제와 고구려를 토벌하고 또 은밀히 신라까지 토벌하려 계속 머물렀다. 이때 유신이 그 음모를 간파하고 당나라 병사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독주를 먹여 모두 죽이고 그들을 구덩이에 묻었다.”고 하였다. 지금의 상주의곽에 당교가 있는데 이곳이 그들을 묻은 땅이라 한다.”¹⁰⁴⁾

최근 두 사료를 연결시켜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¹⁰⁵⁾ 즉 668년 고구려의 멸망 이후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국지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요구된다.¹⁰⁶⁾ 왜냐하면 적어도 670년 3월 이전까지는 신라와 당나라의 충돌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라가 당나라와 서로 협력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⁰⁷⁾

102) 김수미, 「박도유 모반사건으로 본 웅진도독부와 신라의 갈등」, 『백제문화』 44, 2011.

103) 『삼국유사』 권2, 문무왕 법민조.

104) 삼국유사』 권1, 기이, 태종 춘추공조.

105) 김정민, 앞의 논문, 105~113쪽.

106) 김수태, 「침공군 사령관 소정방의 좌절」, 『내일을 위한 역사』 17, 2004, 100~102쪽.

107) 김수태,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 유민지배」, 『이기백기념 사학논총』(상), 1994.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¹⁰⁸⁾ 신라가 김유신의 동생인 김흠순을 謝罪使로 669년 5월에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¹⁰⁹⁾ 당나라와의 대화를 통한 타협을 모색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김유신은 그의 동생을 통해서 당의 입조 요구를 거부한 자신과 신라가 당나라에 무엇을 바라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67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라와 당나라는 직접 충돌하게 되었다. 다름 아니라 신라의 옛 백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관련해서였다.

“10년(670) 봄 정월에, 고종이 흠순의 귀국을 허락하였으나, 양도는 억류하여 감옥에 가두었는데, 결국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왕이 마음대로 백제의 땅과 유민을 취하였기 때문에 황제가 노하여 책망하며 다시 사자를 억류한 것이다.”¹¹⁰⁾

”7월에 이르러 당나라 조정에 사신으로 갔던 김흠순등이 땅의 경계를 그린 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도를 살펴보니 백제의 옛 땅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하(가 아직 떠와 같이 되지 않았고 태산이 아직 솟돌같이 되지 않았는데, 3~4년 사이에 한 번은 주었다 한 번은 빼앗으니 신라 백성은 모두 본래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모두 ‘신라와 백제는 여러 대에 걸친 깊은 원수인데, 지금 백제의 상황을 보자면 따로 한 나라를 세우고 있으니, 백 년 뒤에는 자손들이 반드시 그들에게 먹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신라는 이미 중국의 한 주이므로 두 나라로 나누는 것은 합당치 않다. 바라건대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길이 뒷날의 근심이 없게 하자고 하였습니다.”¹¹¹⁾

위의 사료는 당시 신라의 당나라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해 준다. 670년에 들어와서 신라가 취리산 회맹을 통해서 획득한 옛 백제지역만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옛 백제지역 전부

108) 이를 문무왕의 목장(牧場) 사여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기는(주보돈, 「나당동맹의 시말」, 『대구사학』 126, 2017, 28쪽과 김정민, 앞의 논문, 121~123쪽) 어려울 것 같다.

109) 『삼국사기』 권6, 문무왕 9년.

110) 『삼국사기』 권6, 문무왕 10년.

111)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를 실질적으로 신라의 영토로 만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갔기 때문이다. 사실 백제부흥운동의 진압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유신과 김흠순이 옛 백제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컸던가는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당나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흠순을 통해서 신라가 차지한 옛 백제의 땅을 모두 돌려주라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의 바람을 당나라가 거부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신라는 웅진도독부의 백제유민들이 백제라는 자신의 국가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신라와 당나라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신라와 당나라의 군사적 충돌만이 남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는 신라의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의 발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김유신은 백제부흥운동을 진압할 때 신라가 과거에 백제에 시달리던 국가가 아니라, 대국이 되었다고 말하였다.¹¹²⁾ 더욱이 고구려의 멸망까지를 신라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662년 군량 수송작전을 위해서 고구려 땅으로 처음 진출할 때의 긴장감과 달리 668년에 고구려의 평양을 함락시키고, 더 나아가 670년 3월에 들어와서 설오유가 고연무와 함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압록강까지를 건너가서 활약한 사실은¹¹³⁾ 신라의 국가적 성장에 더욱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김유신은 당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 신라의 선택과 행동이 옳바르다고 하는, 즉 이른바 ‘曲直論’을 주장하였다.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주어서 백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신라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백제 중상-충상-이라고도 한다.- 좌평이 왕에게 “신라인의 해골을 가지고 있어도 이로울 것이 없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나이다. 만약 신라인들이 신의를

112)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113) 『삼국사기』 권6, 문무왕 10년.

저버려 우리 여덟 사람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잘못은 저들에게 있고 올바름은 우리에게 있으니(則曲在彼 直在我) 무슨 근심거리가 있겠사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품석 부부의 뼈를 과내 관에 넣어 보냈다.”¹¹⁴⁾

“지금 우리나라는 충성과 믿음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백제는 오만 때문에 망하였고 고구려는 교만 때문에 위태롭게 되었다. 이제 만약 우리의 곧음으로 저들의 굽음을 친다면 뜻을 이룰 수 있거늘(今若以我之直 擊彼之曲 可以得志)”¹¹⁵⁾

“왕이 “당나라군은 우리를 위해 적을 섬멸하였는데 도리어 그들과 싸운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겠는가?”라고 말하자, 김유신은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이옵니다. 어찌 어려움을 만났는데 스스로 구할 방법을 찾지 않겠사옵니까?(犬畏其主 而主踏其脚 則咬之 豈可遇難而不自救乎) 청컨대 대왕께서는 이를 허락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¹¹⁶⁾

김유신은 당나라의 태도가 오만해서 멸망한 백제나 교만해서 붕괴하고 있던 고구려처럼 ‘曲’, 즉 굽었으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았다. 그와 달리 신라의 태도는 ‘直’, 즉 바르다는 것이다. 주인과 개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를 설명하고 있다.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주인과 개의 관계가 그대로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는다면 개가 주인을 무는 것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곡직론’은 백제의 멸망을 위해서 신라를 도와주었던 당나라와의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김유신은 648년 태종 무열왕에게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당나라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신라는 670년 6월에 들어오면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과도 연결되어 갔다.¹¹⁷⁾ 또한 675년에는 “백제 땅을 많이 빼앗아 드디어 고구려 남쪽 경계지역에 이르기까지 주와 군으로 삼았다.”고 한다.¹¹⁸⁾ 이는 앞으로 신라가 평양 이남의 고구려 지역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114)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상.

115)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 하.

116) 『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 중.

117) 김수태, 앞의 논문, 338~349쪽.

118)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5년.

라고 할 수 있다. 671년에는 사비에다가 소부리주를 설치함으로써 백제가 더 이상 당의 일부가 아니라, 신라에 속한 하나의 州일 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라와 백제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구려와도 하나의 국가가 됨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당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라의 외교적 환경이 더욱 유리해지도록 일본과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¹¹⁹⁾ 이를 바탕으로 원술에게 대했던 태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김유신은 당나라에 대하여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나당전쟁을 시작하였다고 하겠다.¹²⁰⁾

고구려 멸망 직후 짧은 시간에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었던 이와 같은 상황은 당나라가 백제와 신라에 실시했던 기미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한다. 한편 신라는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힘으로, 즉 당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백제와 고구려까지 포함하는 삼국으로 통일하였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일통삼국’이란 말 그대로 삼국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김유신은 삼국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 ‘삼한통일론’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해서 김유신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김유신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주제를 더욱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김유신의 경우에도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그의 활동을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혹은 외교가, 사상가, 즉 경세가로서의 또 다른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기 때

119) 노태돈, 앞의 논문, 116쪽.

120) 이러한 점에서 김유신의 사후 신라가 나당전쟁에서 수비 위주의 입장을 취했다고 보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전경효, 앞의 논문, 29쪽)

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김유신으로, 하여금 문무왕과 함께 신라의 삼국통일을 마침내 이루어 낼 수가 있었으며,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신라의 국가적 위치를 확고히 차지하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김유신의 사상적 기반에 대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김유신의 유교에 대한 관심은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지만, 역시 중고기 신라의 유교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던 김유신이 가지고 있던 시대적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고기에서 중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삼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인물로서 크게 활동한 김유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라사회에서 무엇이 연속되고, 무엇이 단절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2년 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김강훈,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 138, 2020.
- 김수미, 「박도유 모반사건으로 본 웅진도독부와 신라의 갈등」, 『백제문화』 44, 2011.
- 김수태, 「문무왕」, 『한국사시민강좌』 13, 1993.
- 김수태,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 유민지배」, 『이기백기념 사학논총』(상), 1994.
- 김수태, 「침공군 사령관 소정방의 좌절」, 『내일을 위한 역사』 17, 2004.
- 김수태, 「임전무퇴의 사회사-원술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연구의 현 단계』, 2009.
- 김수태, 「신라의 천하관과 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32, 2014.
- 김수태, 「『삼국유사』의 편목구성과 삼한·삼국통일론」, 『신라사학보』 41, 2017.
- 김복순, 「김유신(595~673) 활동의 사상적 배경」, 『신라문화』 31, 2008.
- 김영하, 「유학의 수용과 지배윤리」, 『한국고대사연구』 40, 2005 『신라중대사학회연구』, 2007.
- 김영하, 「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 1 - 최근의 사료 비판과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9, 2018.
- 김영하, 「신라의 ‘백제통합’과 ‘일통삼한’ 재론 2 - 핵심 사료의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95, 2019
- 김은숙, 「8세기의 신라와 일본의 관계」, 『국사관논총』 29, 1991.
- 김정민, 「669년 신라의 사죄사 파견과 나당전쟁의 발발배경」, 『한국사연구』 178, 2017.
- 김태식, 「方士로서의 김유신 - 道敎敎團으로서의 화랑 탐구를 겸하여」, 『신라사학보』 11, 2007.
- 김태식, 「김유신의 입산수도과 그의 용화낭도」, 『한국고대사탐구』 13, 2013.
- 나희라, 「고대 한국의 점복 시행과 그 의미」, 『대구사학』 126, 2011.
- 노태돈, 「대당전쟁기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1997.
- 노태돈, 「삼한일통의식의 형성시기에 대한 고찰-일본서기 ‘삼한’ 기사의 분석을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 16, 2016.

- 박현숙, 『삼국유사』 「기이」편 태종 춘추공조의 내용 구성과 신이성,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39, 2018.
- 박찬홍, 「김유신 관련 사료를 통해 본 시기별 인식」, 『동양고전연구』 72, 2018.
- 배근홍, 「신라 문무왕대의 대당외교」, 『신라문화』 16, 1999.
- 서영교, 「백제멸망전쟁과 김흠순」, 『영남학』 74, 2020.
- 서의식, 「김유신 - 삼국 통일에 평생을 바친 智勇 겸비의 명장」, 『한영우기념사학 논총』, 2003.
- 이기동, 「김유신-‘至誠’으로 이룬 삼국통일의 위업」, 『한국사시민강좌』 30, 2002.
- 이기백, 「유교수용의 초기형태」, 『한국민족사상사대계』 2, 1973 ; 『신라사상사연구』, 1986.
- 이기백, 「김대문과 김장청」, 『한국사시민강좌』 1, 1987.
- 이문기, 「금관가야계의 시조 출자 전승과 稱姓의 변화」,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5 2004.
- 이문기, 「648·649년 신라의 대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2016.
- 이문기, 「『삼국유사』 기이편 「김유신」조의 재음미」,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9, 2018.
- 이민수, 「백제 멸망기 당의 신라침공계획」,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 이상훈,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 2012.
- 이상훈, 「661년 북한산성 전투와 김유신의 대응」, 『국학연구』 31, 2016.
- 이상훈,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논총』 17, 2016.
- 이현숙, 「김유신의 풍병과 신라 통일전쟁기의 질병」, 『신라사학보』 12, 2008.
- 이현태, 「신라 중대 신김씨의 등장과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 장창은, 「7세기 전반~중반 백제·신라의 각축과 국경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전덕재,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의 원전과 그 성격」, 『사학연구』 139, 2020.
- 전경효, 「7세기 후반 나당관계와 김유신」, 『대구사학』 115, 2014.
- 전덕재,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의 원전과 그 성격」, 『사학연구』 139, 2020.
- 정구복, 「김유신(595~673)의 정신세계」, 『청계사학』 16·17, 2002.
- 조범환, 「김유신의 가계와 후손들의 활동-‘가야계 출신이어서 가지는 한계’의 학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신라사학보』 11, 2007.
- 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 『한국학논집』 20, 1993.

- 주보돈, 「김유신의 정치지향-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신라사학보』 11, 2007.
주보돈, 「통일신라의 (능)묘비에 대한 몇 가지 논의」, 『목간과 문자』 9, 2012.
주보돈, 「김유신」, 『신라를 빛낸 인물』, 2016.
주보돈, 「나당동맹의 시말」, 『대구사학』 126, 2017.

Silla's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and Kim Yusin

Kim, Soo-tae

It can be said that full fledged interests in Kim Yusin arose after entering 2000s. This is because of published articles that depicted the overall picture of him.

However, there seems to be still a lack of interest in Kim Yusin's thoughts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Although the present author's view on that matter has been expressed, there is an ongoing controversy surrounding the theory of Silla's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Kim Yusin's theory of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as. For this,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what kind of interest Kim Yusin had in the diplomatic situations at that time. In general, Kim Yusin is understood as an independent figure with a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Tang dynasty. However, that would only be a partial understanding of Kim Yusin. This is because it will be necessary to properly follow the temporal change of Kim Yusin'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On the other hand, it will be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Kim Yusin's ideological basis. Although there is an article that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Yusin and Confucianism, the fact that this relationship was based on Confucianism of the Middle Ancient period of Silla has not been properly handled. This relation is demonstrated

in the fact that he led Silla's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based on Won Gwang's Sesok Ogye. Through this, he greatly emphasized the communal bonding of the members of the Silla society.

Therefore, through this approach, it further enable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Kim Yusin's other major activities in the East Asian World at that time, not just as a military general, but also as a politician, diplomat, and thinker.

keywords :

Kim Yusin, Kim Chunchu,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Confucianism, Tang dynasty

